「지방정부연구」 제20권 제3호(2016 가을): 325-343
The Korean Journal of Local Government Studies, Vol.20 No.3 (2016 Autumn)
http://dx.doi.org/10.20484/klog.20.3.15

마을 만들기 사업 가치평가의 결정요인 추정: 지역사회자본의 영향력을 중심으로

주 덕

국문요약

본 연구는 최근 전국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마을 만들기 사업이 추구하고 있는 환경개선효과, 주민자치역량 강화, 공동체의식 형성 등의 사회적 편익을 실제 지역 주민들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가에 대한 물음에서 출발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대전시의 좋은 마을 만들기 사업을 대상으로 조건부가치평가법을 적용하여 대전 시민이 평가하는 마을 만들기 편익의 총가치를 추정하고, 그러한 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자본 구성요인을 도출하였다. 분석 결과, 사회적 자본 요인 중 참여(1% 수준)와 호혜성(1% 수준)이 좋은 마을 만들기 사업의 평가에 있어 정의 영향을 미쳤으며, 인구 통계적 변수 중 연령, 교육수준, 거주기간(10% 수준)이 정의 영향을 미쳤다. 좋은 마을 만들기 사업 추진기금에 대한 연간 가구당 지불의사 금액은 6,085원이었으며, 모집단 확장을 통해 도출한 사업의 총가치는 약 36억 4천만 원이었다. 이는 현재 투입되고 있는 사업의 연간 예산뿐만 아니라 2015년까지 3년간 투입된 총예산과 비교했을 때에도 크게 상회하는 금액으로 좋은 마을 만들기 사업의 편익에 대한 주민의 인식과 평가가 매우 긍정적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주제어: 마을 만들기 사업, 가치평가, 조건부가치평가법, 이중양분선택형, 지역사회자본

Ⅰ. 서론

지방자치제도의 정착과 소득 향상으로 인한 시민의식의 변화는 국내에서 로컬거버넌스(local governance)라는 개념을 등장시킨 동인으로 평가되고 있다. 로컬거버넌스는 '지역 공동의 문제를 해결하고 조정하기 위해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다양한 행위자들이 수평적 네트워크와 파트너십을 형성하는 새로운 공동의사결정체'를 의미하며, 현재 전국적으로 각 지자체에서 추진되고 있는 '마을 만들기 사업'은 그 일환으로 해석된다(전영평, 2002).

마을 만들기 사업은 1990년대 '차 없는 거리조성', '꽃길골목가꾸기' 등의 생활환경 정비 목적의 자생적 마을 만들기 사례를 시초로 2000년대 들어 지방자치단체들의 행정 지원을[1] 통해 추진되고 있다. 이러한 마을 만들기 사업은 주민 참여가 핵심이 되어 진행됨에 따라 주민자치역량 강화

1) 북촌 가꾸기(2000)를 시작으로 인사동 지구단위계획(2002),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형 지구단위계획 시범사업(2008), 서울휴먼타운사업(2010), 경관협정 시범사업(2011) 등

및 공동체의식 형성 등의 긍정적 효과와 더불어 도시재생 및 환경개선 효과, 마을 특성화, 일자리 창출, 주민 생활복지 수요 충족 등의 행정 효율성을 높이는 효과를 보이고 있다(홍진이, 2013). 따라서 이러한 긍정적 효과에 대한 기대로 현재 전국의 각 지자체는 '마을 만들기 사업'을 핵심 정책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일부 지자체의 마을 만들기 사업은 주민 주도가 아닌 중앙정부의 지원을 통해 정책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추진방식 또한 중앙정부나 지방정부의 공모제 방식을 취하고 있어 사업의 의미와 지향점이 퇴색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무엇보다 사업의 중심축이 되어야 하는 지역주민과 지자체 간에 사업에 대한 명확한 합의에 이르지 못하여 지역 전체 주민의 참여가 아닌 일부 집단과 계층만 참여하고 있으며 그로 인해 그 수혜 또한 극히 일부에게만 머물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마을 만들기 사업은 추진 단계에서 사업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주민참여가 낮을수록 실패 확률이 높아지고 주민 전반의 공감이 미흡할 경우 사업의 지속성을 담보하기 어렵다.

따라서 마을 만들기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마을 만들기 사업의 긍정적 기대효과에 대한 인식과 그로 인한 사업 추진의 합의가 이루어지고 있는가에 대해 타진해 볼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는 마을 만들기 사업이 국가 예산으로 추진되고 있는 공공사업의 성격을 가지는 바, 해당 사업으로 인한 편익을 모든 시민이 공유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마을 만들기 사업에 대한 주민들의 평가를 경제적 가치로 측정하여 그 결과를 현재 투입되고 있는 마을 만들기 관련 예산과의 비교를 통해 해당 사업의 타당성과 지속가능성을 타진해 보고자 한다.

전술한 바와 같이, 마을 만들기 사업이 시민의 세금으로 추진되는 정책 사업으로서 편익의 공공성을 가지며, 주민의 자발적이고 주도적인 활동이 사업의 핵심이 된다는 측면에서, 해당 사업에 대한 주민의 인식과 참여에는 협력과 신뢰의 기제인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이 영향력을 나타낼 수 있다. 사회적 자본은 공익을 위한 사회 구성원들의 생산적 상호작용을 창출하는 무형자산으로(최길수, 2013), 지역주민의 상호신뢰를 기반으로 수평적 네트워크와 수직적 교류를 가능케 하여 지역의 사회경제적 발전에 기여하는 것으로 평가받는다(소진광 외, 2006). 따라서 사회적 자본이 공공의 이슈에 대한 구성원들의 합의된 문제의식과 이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을 가능케 한다는 측면에서 공공사업인 마을 만들기 사업의 추진 타당성을 확인하는데 사회적 자본의 영향력을 규명하는 것은 실무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 같은 맥락에서 본 연구는 신뢰와 배려의 공동체 조성과 주민자치의식 함양 및 역량강화를 정책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대전형 좋은 마을 만들기 사업'을 대상으로 대전시민이 평가하는 가치를 측정하여 마을 만들기 사업의 추진 타당성을 확인하고자 한다. 그리고 그러한 주민 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자본의 구성요인을 파악하여 향후 마을 만들기 사업의 주민 참여를 독려할 수 있는 사회적 자본의 증진방안을 논의하는데 목적을 둔다. 방법적인 측면에서 마을 만들기 사업의 가치평가와 사회적 자본 간의 인과관계 파악을 위한 수요모형은 조건부가치평가법(contingent valuation method)을 통해 도출한다. 즉, 마을 만들기 사업의 가상시장 구축을 통해 주민의 지지도에 대한 대리변수(proxy)로 지불의사(willingness to pay) 수단을 사용하며, 도출된 효용함수에 따

라 마을 만들기 사업의 가치평가에 미치는 사회적 자본의 영향력을 분석하여 그에 따른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Ⅱ. 이론적 논의

1. 마을 만들기 사업

마을 만들기 사업의 시초로 언급되는 일본의 '마찌즈쿠리(まちづくり)'는 1960년 후반 '거대 개발이 아닌 주변 생활환경의 정비', '관 주도의 집권형 도시계획이 아닌 시민참여의 분권형 도시계획'이라는 목표로 시작되어 현재는 마을단위부터 도시전역의 도시계획에 이르기까지 주민들의 참여와 주도하에 이루어지는 도시계획을 폭넓게 지칭하는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다(와타나베순이치, 2004). 국내의 마을 만들기 사업은 각 지자체별로 각 지역의 특성과 해당 지방정부의 정책목표에 부합되게 지역별로 약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으나 큰 맥락으로는 마찌즈쿠리와 동일한 추진목표를 지향한다고 볼 수 있다.

마을 만들기 사업은 주민들이 자신 주변의 공적인 문제에 관심을 가지며 자발적으로 사업에 참여하여 활동하면서 자치의식이 자연스럽게 배양됨에 따라 지역 차원에서 주민자치역량이 강화되고 행정의존도가 낮아지는 효과를 가진다(홍진이, 2013). 또한 마을공동체에 대한 관심의 증대와 공동체의식의 발현으로 공익사업의 추진이 원활해지고, 도시재생과 환경개선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치며, 마을 특성화, 일자리 창출, 생활복지의 주민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평가받는다.

이러한 긍정적 평가에 힘입어 국내의 마을 만들기는 2000년대 이후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역사적으로 마을만들기는 관련 연구들이 시작된 도입기(1999-2002년)를 거쳐, 2003-2006년으로 구분되는 정착 1기에 각 지자체에서 마을만들기 관련 조례 등이 제정되었으며, 이후 2007-2010년의 정착 2기에는 국토해양부의 '살기 좋은 도시 만들기' 사업, 행정안전부의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사업 등의 중앙부처 사업들이 추진되었다(윤혜영, 2013). 2011년부터 현재까지로 구분되는 마을 만들기 확산기는 각 지자체에서 마을만들기 지원제도, 지원센터 등이 가장 활발하게 만들어진 시기로 현재 8개 광역자치단체와 88개 기초자치단체가 '마을 만들기'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주민들의 사업참여 활성화와 행정효율성 제고를 위한 마을활동가, 지원센터 등의 중간지원조직[2)]이 만들어지고 있다(정석, 2015).

그러나 마을 만들기 사업의 취지와 기대효과를 고려해 봤을 때, 마을 만들기 사업의 성패는 적극적인 주민 '참여'에 달려있다. 주민참여는 개인, 가족, 공동체가 자신과 공동체의 발전을 위한 역

2) 2006년 광주의 '북구마을만들기 지원센터'를 시작으로 강릉시(2008), 안산시(2008) 센터, 2012년 '서울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가 개소됨. 현재 한국마을지원센터협의회에 가입된 센터는 19개, 전국 총 94개의 마을 만들기 지원센터가 운영·계획 중(한국 마을지원센터 협의회 내부자료)

량을 키워나가는 활동 과정으로(Oakiey and Marsden 1987), 20세기 후반 국가의 한계와 시장의 실패를 경험하면서, 다양한 사회문제의 해결방안으로 시민사회의 협력적 행동(joint action)을 이끌어내기 위한 '거버넌스'의 주요 행위자로서 주목받게 되었다(정규호 2007). 최근에는 공동체 회복이 강조되면서 '주민참여'는 '제도적 참여'나 '목적적 참여'가 아닌 향후 장기적인 전망으로 마을 만들기를 실천하는 '가치적 참여'를 의미하게 되었다(유상건, 2007).

이러한 이유로 마을 만들기 사업의 효과적인 정책 추진을 위해 주민참여 증진 요인에 관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1999년부터 2014년까지 KCI 등재(후보) 학술지에 게재된 마을만들기 관련 논문 117편의 연구내용 분석 결과, 마을 만들기 연구는 1990년대 후반에 시작되어 2007년과 2011년을 기점으로 크게 증가하였으며, 주로 주민, 행정, 전문가 등 '마을 만들기'에 참여하는 각 주체의 역할, 의식, 특성을 분석(최희영·이희정(2014), 이왕기·정승현(2014), 전경호(2013), 안현찬·박소현(2012))한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다(김택규, 2015). 특히 마을 만들기 사업에 있어 주민조직의 중요성을 나타내 듯, 주민(주민조직)을 대상으로 그들의 참여 동기와 만족도를 조사한 연구가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각 지자체에 추진되고 있는 마을 만들기 사업은 주민 주도형 사업이 아닌 중앙정부의 지원을 통해 정책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추진방식 또한 중앙정부나 지방정부의 공모제 방식을 취하고 있어 사업의 의미와 지향점이 퇴색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또한 일부 지역에서는 지역주민과 지자체간에 사업에 대한 명확한 합의에 이르지 못하여 지역 전체 주민의 참여가 아닌 일부 집단과 계층만의 참여로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마을 만들기 사업은 추진 단계에서 사업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주민참여가 낮을수록 실패 확률이 높아지고 주민 전반의 공감이 미흡할 경우 사업의 지속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것으로 분석된다(홍진이, 2013). 따라서 마을 만들기 사업에 대한 해당 지역 주민의 인식과 참여수준을 파악하는 것은 사업 추진에 중요한 의미를 가지며,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마을 만들기 사업 추진 예산 확보를 위한 사업 기금에 대한 주민들의 지불의사를 마을 만들기 사업에 대한 주민 인식과 참여 수준을 파악하는데 활용하고자 한다.

2. 지역사회자본

현재 국내에서 추진되고 있는 마을 만들기 사업은 지자체별 마을 단위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마을 만들기 관련 사회적 자본을 측정함에 있어서도 지역 단위의 사회적 자본에 대한 탐색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지역사회(local community)란 '특정의 지리적 범위 안에 있는 사람들이 함께 생활하면서 사회적·심리적 유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로 정의되며(정지웅 외, 1999), '동일한 지리적 공간에서 공동의 문화, 가치, 태도 등 공통적인 특성을 지닌 사람들이 공동의 유대를 통해 사회적으로 상호작용하는 공동체'로 정의된다(Hillery, 1995). 그러나 최근 교통·통신의 발달에 따른 생활권 범위의 확대는 지리적이고 공간적인 요인보다 사회관계적인 공동체 특성인 '사회적·심리적 유대'가 강조되고 있어 이는 일종의 사회적 자본의 발현으로 해석된다(곽현근, 2007).

사회적 자본은 '특정 사회나 조직 내에서 참여와 네트워크, 신뢰와 호혜성, 규범 등의 기제를 통

해 사회 구성원들의 생산적 상호작용을 창출시킴으로써 사회 전체의 효율성을 증진시켜 궁극적으로 사회·경제적 발전에 기여하는 무형의 자산'으로 정의된다(주덕, 2015). 특히 지역 거버넌스와 관련하여 지역을 기초로 형성되는 사회적 자본인 지역사회자본은 '상호책임성과 주체성(mutual responsibility and ownership)을 통해 개인과 지역의 행위 패턴을 긍정적으로 성립시켜 주는 실천'으로, 첫째, 구축 단위가 지역사회 수준이고, 둘째, 자원 성격이 강조되며, 셋째, 궁극적 지향점이 지역의 문제 해결능력(community competence) 향상 등의 특성을 가진다(하워드 가드너, 2006).

즉, 지역사회자본은 지역 사회 내의 사회관계에 내재된 자원으로서 개인이나 조직 및 지역사회의 연결과 참여를 구축하는 행위를 통해 지역사회의 협조와 협력의 토대를 형성하는 자원으로 정의할 수 있다. 따라서 지역사회에서 주민조직의 참여활동을 통해 추진되는 '마을 만들기 사업'은 해당 지역의 사회적 자본에 따라 그 결과와 추진력에 차이를 보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마을 만들기 사업에 대한 주민 인식과 참여 수준에 있어 사회적 자본의 영향력을 파악하여 그 결과에 따른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이러한 사회적 자본의 측정은 지역과 학자에 따라 다양한 구성요인과 방법이 시도되어 왔다. 사회적 자본의 핵심요인으로 Coleman(1998)과 Fukuyama(1995)는 신뢰를, Bullen & Onyx(1998)는 지역사회참여, 사회에서 적극적인 활동력, 신뢰와 안전 감지, 이웃 및 가족, 친구관계, 다양성의 포용력, 삶의 가치, 작업연계 등을, Krishna(1999)은 비공식 네트워크, 기존 역할, 결속력, 상호 신뢰를, 그리고 Stone(2001)은 규범, 가치, 연결망 등을 제시하였다. 국내 연구에서 최영출(2004)은 신뢰, 네트워크, 사회적 규범, 참여기회, 이타주의 및 포용력 등을, 김명숙(2004)은 신뢰, 규범, 사회연계망 등을, 소진광(2006)은 신뢰, 참여, 연계망, 제도 및 규범, 이타주의 등을 제시하였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2012)은 신뢰, 시민참여, 호혜성, 네트워크, 규범 등으로 지역의 사회적 자본을 측정하였다.

〈표1〉 본 연구의 사회적 자본 구성요인

구성요인	개념적 정의	표현 인자		
		미시적	중간적	거시적
참여	개인이 속한 조직이나 사회에 대한 관여와 자발적 지원	가족문제에 대한 자발적 참여	지역사회단체 및 지역자치활동 참여, 지역공공시설물 이용	투표참여정도
네트워크	지역 사회의 개인이나 집단 등 행위자들 간의 전체적인 상호작용	가족 간 교류	이웃과의 교류, 지역행사 참여, 비상시 연락가능한 이웃의 범위	외부 지역민과의 교류
신뢰	타자의 행위에 대한 긍정적 기대의 확신	가족에 대한 신뢰	이웃·지역정부·공무원에 대한 신뢰, 지역 안전 체감도	중앙정부 및 관련 기관장에 대한 신뢰
규범	개인에게 당위적으로 요구되는 공동체의 내면적 가치기준	가정규범 준수	지자체조례 준수, 범법행위신고, 지역문제해결을 위한 활동	법과 질서 준수
호혜성	행위보상에 대한 기대 없이 공익을 위해 상호 협력하는 의지	개인의 사후 재산환원 및 장기 기증 의사	지역봉사활동 동참, 지역의 혐오시설 수용성, 소외계층 지원	다문화가정 지원정책 찬성여부

전술한 이론적 근거와 선행연구에서 도출된 구성요소들을 종합하여 본 연구에서 적용할 지역사회자본은 '지역의 사회·경제적 발전을 위한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생산적 상호작용을 통해 형성되는 무형의 자산'으로 정의한다. 이러한 사회적 자본의 측정에 있어서는 Coleman(1998)의 분석단위인 지역사회 내 개인을 차용하여 본 연구 대상지의 지역민 개인으로 한정하였으며 구성요소로는 지역을 대상으로 한 사회적 자본 연구에서 공통적으로 사용된 참여, 네트워크, 신뢰, 규범, 호혜성을 설정하여 각 요인과 상관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표현인자들을 설정하였다.

기존의 사회적 자본 관련 연구들은 주민조직 참여 활동에 대한 결과로서 사회적 자본을 탐색하였다. Forrest & Kear(2001)는 주민조직의 참여활동을 통해 신뢰, 자조(self-help) 및 상호호혜의 규범이 형성됨을 주장하였으며, Onyx & Bullen(2001)은 시민들의 적극적인 공동체 활동을 통해 사회적 자본이 형성됨을 확인하고, 부차적으로 국가가 주도적으로 사회적 자본 생성에 관해 원거리에서 지원해야 함을 주장하였다. 결국 사회적 자본 생성의 주체는 시민 또는 집단구성원이며, 방법적인 측면에서 그러한 집단 행위에 대한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 및 태도가 사회적 자본의 결과를 형성한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Cox & Caldwell, 2000). 이러한 측면에서 사회적 자본 수준이 공동체 참여 활동의 인식과 주민조직 참여의 선행변인임을 가설하여 분석한 본 연구는 주제의 희소성을 가지며, 그러한 영향관계 분석에 있어서 금전적 지불행위를 대리변수로 적용했다는 점에서 방법적 차별성을 가진다.

3. 마을 만들기 사업의 수요모형과 추정방법

비시장재화인 마을 만들기 사업의 수요분석을 위해 본 연구에서 사용된 방법은 조건부시장가치평가법(CVM)이다. CVM은 시장에서 평가되지 않는 재화나 서비스에 대해 소비자의 지불의사(Willingness To Pay: WTP)를 파악함으로써 해당재화나 서비스의 화폐적 가치를 평가하는 방법을 뜻한다. CVM은 가상시장에서 WTP를 유도하기 위한 설문방법에 따라 개방형(open-ended)과 양분선택형(dichotomous choice: DC)으로 구분된다. 개방형에서 응답자는 최대지불의사 금액을 대답하지만 양분선택형에서는 대상재화에 대한 자신의 가치가 제시 가격보다 클 경우 '예'라고 반응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아니오'라고 반응한다. 양분선택형으로 응답자가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이 '예'와 '아니오'뿐이기 때문에 응답자들이 자신들의 선호를 사실에 가깝게 나타내도록 하는 적합한 유인이 존재한다(Mitchell and Carson, 1989).

양분선택법은 다시 주어진 제시금액에 대해 '예' 또는 '아니오' 중 하나를 택하게 함으로서 응답자의 지불의사 표출과정을 마치는 단일양분선택형(single bounded dichotomous choice: SBDC) 질문법과 주어진 제시가격에 대한 1차 지불의사 표출과정을 마친 후, 첫 번째의 응답 결과에 따라 가격대를 달리하여 재차 묻는 방식의 이중양분선택형(double bounded dichotomous choice: DBDC) 질문법으로 나뉜다. DBDC에서는 예컨대, 미리 설정된 금액 중 무작위로 도출된 하나의 금액에 대해 응답자의 지불의사를 물은 후 응답자의 수락여부에 따라 최초 제시액의 2배를 제시하거나 1/2을 제시하여 2차 수락여부를 질문하게 된다.

경제학의 패러다임은 소비자가 자신의 가능한 모든 행위로부터 최대의 만족을 얻기 위해 노력한다는 가정으로부터 구축된다. 경제학자들은 이 만족을 좀 더 함축적인 개념으로 효용이라고 표현하는데, 가치를 부여받기 위해서 모든 재화는 크든 작든 효용을 가져야 한다. 개별 소비자들은 자신이 지불 또는 감수해야 될 가격이나 비용에 견주어 보았을 때 가장 큰 효용(가치)을 제공하는 재화나 서비스를 선택하는 경향이 있다. 마을 만들기 사업으로 인한 환경개선, 공동체성 형성, 사회경제적 발전 등의 가치에 대한 효용을 가지고 있다고 가정할 경우, 주민들은 이들 효용을 얻기 위해 WTP를 갖게 될 것이다(이희찬, 2007).

힉스(Hicks)의 보상 또는 동등 잉여추정을 위한 DC CVM의 이론적 근거는 효용격차모형(utility difference model)에 기초한 것이다(Hanemann, 1984). 특정 재화를 취득하기 위한 제시가격에 대해 개인은 '예' 또는 '아니오'를 선택함으로써 자신의 효용을 극대화할 수 있으며, 이때 개인의 효용은 다음과 같이 주어졌다고 가정한다.

$$U = U(r,\ Y; S).$$

여기에서 r은 지시변수로서 개인이 지불의사를 보이면 r=1,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r=0으로 표현된다. Y는 소득이며, S는 벡터로서 선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개인의 특성들을 의미한다. 함수에 포함된 관측할 수 없는 임의요소로 인해 개인의 효용은 간접효용함수인 평균 $v(r,\ Y; S)$와 오차항 ϵ_r의 분포를 갖는 확률변수(random variable)로 취급될 수 있다. 여기에서 $\epsilon_r\,(r = 1, 0)$은 평균이 0이고 독립적이고 동일한 분포를 갖는 확률변수이다.

응답자가 '예'를 선택한다는 것은 일정한 제시금액(A)을 지불하여 해당 재화를 통해 효용을 얻는 것이 그렇지 않고 현 소득을 유지하는 것보다 효용수준이 높거나 같다는 것을 의미하며 다음 식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이희찬, 2007).

$$v(1,\ Y+A; S) + \epsilon_1 \geq v(0,\ Y; S) + \epsilon_0 \qquad \text{식(1)}$$

또는 간접효용격차(Δv)를 사용하여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Delta v(A) = v(1,\ Y+A; S) - v(0,\ Y; S) \geq \epsilon_0 - \epsilon_1 \qquad \text{식(2)}$$

식(2)를 이용하여 '예'라고 응답할 확률을 효용격차모형으로 표현하면 다음 식(3)과 같다.

$$\mathrm{Prob}[yes] = \mathrm{Prob}[\Delta v(A \geq \eta)] = F_\eta[\Delta v(A)] \qquad \text{식(3)}$$

여기에서 $\eta = \epsilon_0 - \epsilon_1$이며, $F_\eta[\Delta v]$는 η에 대한 누적분포함수로서 곧 WTA의 누적분포함수이다. 개별소비자가 주어진 재화와 제시가격에서 '예'로 반응한다는 것은 $\Delta v \geq 0$을, '아니오'라고 응답

할 경우엔 $\Delta v < 0$을 의미한다. 식(3)에 의해 설명된 확률모형 추정은 일반적으로 누적정규분포를 가정하는 프로빗모형이나 로지스틱 함수를 가정하는 로짓모형이 이용되며 본 연구는 logit모형을 적용하였다. 따라서 로지스틱분포함수인 $F_{\eta}[\Delta v]$는 다음 식(4)로 표현된다.

$$F_{\eta}[\Delta v] = \frac{1}{1+e^{-\Delta v(\cdot)}} \qquad \text{식(4)}$$

간접효용함수의 차이에 의해 도출된 로짓모형은 제시가격(A)의 함수로서 A에 의해 지불의사 수요량이 결정된다. 한편, 수요곡선의 이동을 통해 수요량을 결정하는 요인으로서 벡터 S에는 주민의 사회적 자본 변수 외에도 인구통계적 특성 등이 포함될 수 있다.

최우법(maximum likelihood method)을 이용하여 추정된 로짓모형의 파라미터로부터 WTP를 추정하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WTP분포의 집중화경향(central tendency) 측정이 이용된다. 그 중의 하나가 추정된 WTP분포의 평균(truncated mean)을 계산하는 것이다.

$$WTP = \int_{0}^{A^{\max}} \mathrm{Prob}(\triangle V)dA \qquad \text{식(5)}$$

식(5)에서 적분의 상한값 $A^{\max}$는 응답자에게 주어진 가격대 중 최대값을 의미하며, 무한값(∞)에서 적분하는 것에 비해 보수적인 추정치를 제공한다(Hanemann & Kanninen, 1998).

Ⅲ. 연구 설계

1.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

본 연구는 전국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각 지자체의 마을 만들기 사업에 대한 해당 지역 주민의 인식과 참여의지에 대한 수준을 파악하기 위해 대전의 '좋은 마을 만들기 사업'을 연구 대상으로 설정하여, 대전 시민의 인식을 조사하였다. '좋은 마을 만들기 사업'은 신뢰와 배려의 대전공동체 조성, 주민자치의식 함양 및 역량강화 등을 목표로 지자체가 정책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공동체 활동 사업이다.

2013년 시작된 본 사업은 2015년까지 총 5,238명이 참여하여 새로운 마을 공동체를 형성하였다. 구체적으로 2015년까지 총480개의 마을 만들기 참여 공동체에 1,345백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였으며, 연도별로 2013년 총 221개의 공동체에 640백만 원이, 2014년에는 147개 공동체에 431백만 원이, 2015년도에는 112개 공동체에 274백만 원의 사업비가 지원되었다. 사업유형으로는 마을의제를 발굴하는 '모이자'(1단계, A형), 발굴된 의제를 사업화하는 '해보자'(2단계, B형), 모이자

와 해보자 단계를 통해 성장한 마을활동과 사업을 유지·발전시켜 나가는 '가꾸자'(3단계, C형)단계로 나누어 추진되며, 주민공모 방식으로서 참가 자격은 7인 이상의 주민모임, 비영리민간단체, 협동조합 등 이다(대전광역시 사회적 자본 지원센터, 2014).

〈표 2〉 좋은 마을 만들기 사업 유형

구 분	참 여 공동체	유 형 별			사 업 비 (백만원)	참여인원 (명)
		모이자	해보자	가꾸자		
계	480	339	130	11	1,345	5,800
2013	221	166	50	5	640	3,200
2014	147	103	40	4	431	1,570
2015	112	70	40	공동체우선 복원지역2개소	274	1,030

연구 목적을 위한 설문 조사에는 가상의 상황을 설정하여 좋은 마을 만들기 사업의 추진기금에 대한 시민의 지불의사를 이중양분선택형 문항을 통해 조사하였다. 설문은 조사 설계 상 각 제시가격(1,000원, 3,000원, 5,000원) 유형별 100부 동수가 될 때까지 결측치를 포함하거나 불성실한 응답을 제외하여 총300부를 최종 분석에 이용하였다. 설문의 주요 조사 내용은 사회적 자본 측정 문항, 마을 만들기 사업에 대한 지불의사 조사 문항, 인구통계학 특성 측정 문항 등이다. 수집된 자료의 기초분석에는 SPSS 18.0 프로그램이, 지불의사 추정을 위한 로짓모형(Logit Model)분석에는 계량경제학 프로그램인 LimDep 8.0이 사용되었다.

2. 가상시장 설계

가상시장 하에서 양분선택형 질문에 대한 현실성 있는 응답으로 정확한 지불의사를 추정하기 위해서는 가상시장 내에서 응답자들이 소비 행동에 몰입할 수 있는 현실성 있는 시장 환경을 조성해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주덕. 2015). 본 연구는 가상시장 내 대상 재화로 설정한 '대전시 좋은 마을 만들기 사업'의 추진기금에 대한 지불의사를 구하기 위해 본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과 그로 인해 얻을 수 있는 편익을 마을의 문제 해결 및 발전, 마을 환경 개선 및 프로그램 다양화로 인한 주민의 삶의 질 향상, 공동체 활동으로 인해 형성되는 상호 긍정적 정서 형성 등으로 제시하였다. 이후 좋은 마을 만들기 사업이 예산상의 이유로 중단위기에 놓였음을 가상으로 설정한 후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해 시민의 자발적인 기금 모금의 필요성을 설명하였다. 이에 따라 좋은 마을 만들기 사업 추진을 위한 재원은 대전시민의 '대전형 좋은 마을 만들기 기금'이라는 지불수단(payment vehicle)에 의해서만 가능하다는 가정을 세워 본 사업의 추진기금에 대한 응답자의 지불의사를 조사하였다.

응답자는 설문지에서 기술된 가상 상황에서 3년간 연 1회의 가구당 부담금을 제시받게 된다. 초기 제시가격은 예비조사 결과를 토대로 구성된 1,000원, 3,000원, 5,000원이며, 응답자는 이들 중 임의로 주어진 하나의 제시가격에 대해 지불의사 유무를 표출한다. 그리고 이어진 이중양분선택

형 질문은 첫 번째 제시가격에 대한 지불의사에 따라 지불의사가 있는 자는 2배, 없는 자는 1/2배 수준에서 결정된 제시가격에 대해 한 번 더 지불의사를 밝히게 되며, 그 결과를 제시한 모형에 적용하여 좋은 마을 만들기 기금의 추정액을 도출한다.

〈그림〉 좋은 마을 만들기 사업 가상 시나리오

대전광역시는 지역의 사회적 자본 증진을 목표로 다양한 정책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그 중 가장 대표적인 사업이 2013년 시작된 '좋은 마을 만들기 사업'으로 3-5인 이상의 마을주민모임, 비영리민간단체, 협동조합 등의 모임별 추진사업에 대해 다양한 물리적 지원을 함으로써 마을주민 간의 공동체성 조성 및 주민자치의 역량강화를 목표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마을의제를 발굴하는 '모이자'(A형), 발굴된 의제를 사업화하는 '해보자'(B형), '모이자'와 '해보자' 단계를 통해 성장한 마을활동과 사업을 유지·발전시켜 나가는 '가꾸자'(C형)단계로 나뉘며 지난 3년간 총480개 공동체에서 5,800명이 참여하였고, 총 13억4천5백만원의 사업비가 지원되었습니다.

구 분	모이자 사업(A형) (신규공동체 발굴 지원 사업)	해보자 사업(B형) (마을성장프로젝트 지원 사업)	가꾸자 사업(C형) (마을활성화육성 지원 사업)
사업 내용	- 지역자원 조사 - 마을의 문제해결 및 발전을 위한 의제 발굴 활동	- 마을문제 해결을 위한 마을주민공동체 사업 - 동 단위 마을거버넌스 구축사업 2개 이상의 마을공동체 협업사업	- 마을주민 공동체사업 및 마을공동체 간의 공동협력사업 - 민↔관, 주민조직↔민간단체, 공동체↔공동체 강화 육성지원
사업 예시	- 마을조사, 학습, 견학 등 활동지원	- 쓰레기문제, 안전마을 만들기, 텃밭, 돌봄교실 등	- 안전·환경문제 해결, 마을방과후 교육, 동네부엌 등
사업비	200만원 이내	500만원 이내	800-2000만원 이내

기대 효과	
	- 마을에 없거나 부족한 것을 만들고 개선함으로써 마을의 문제 해결 및 발전에 도움이 됩니다. - 마을의 물리적 환경 개선과 다양한 프로그램 제작으로 주민의 삶의 질이 향상됩니다. - 공동체 활동을 통해 구성원간 신뢰와 배려, 호혜성 등의 상호 긍정적 정서가 증진됩니다. - 그러한 정서들은 우리지역의 다양한 갈등의 해소와 사회·경제·문화적 발전에 도움이 됩니다.

* 다음은 가장 상황입니다 해당하는 질문에 답해주십시오

(가상상황) 대전시 시민에게 이러한 다양한 혜택을 가져다 줄 '좋은 마을 만들기 사업'이 예산상의 이유로 사업 중단의 위기에 놓여 졌다고 가정합니다. 이에 지역민의 공동체성 형성과 마을의 환경개선에 기여하는 '좋은 마을 만들기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은 시민의 자발적인 기금 모금을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가정합니다.

1) '좋은 마을만들기 기금'에 향후 3년간 가구당 매년(1,000)원을 지불하실 의사가 있으십니까?

① 있다 (아래 문항(2)으로↓)	② 없다 (아래 문항(2-1)으로↓)
2) 그렇다면, 매년(2,000)원을 지불하실 의사가 있으십니까?	2.1)그렇다면, 매년(500)원을 지불하실 의사가 있으십니까?

Ⅳ. 분석 결과

1.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제시한 최종 분석에 사용된 총300개 표본의 빈도분석 결과, 거주지는 서구가 102명(34.0%)으로 가장 많은 수를 나타냈으며, 기혼자가 180명으로 미혼보다 60명 높게 조사되었다. 여성 비율이 남성보다 22.0%높았으며, 학력별로는 대학 재학 및 졸업이 204명(68.0%)으로 과반을 넘게 차지하였다. 직업별로는 전문직(21.0%)과 사무직(18.7%)이 상대적으로 많았으며, 거주기간별로는 1-5년과 6-10년이 21.7%, 21.3%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40대가 다소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나 비교적 고르게 분포되었으며, 소득별로는 200-300만 원대가 23.3%, 300-400만 원대가 20.7%로 다소 높게 나타났다.

〈표 3〉 표본의 인구통계학 특성

구분		빈도	%	구분		빈도	%
거주 지역	동구	37	12.3	거주 기간	1년 미만	23	7.7
	서구	102	34.0		1-5년	65	21.7
	중구	86	28.7		6~10년	64	21.3
	유성구	51	17.0		11~15년	50	16.7
	대덕구	24	8.0		16~20년	33	11.0
결혼	미혼	120	40		20~25년	34	11.3
	기혼	180	60		26-30년 미만	31	10.3
성별	남성	117	39.0	연령	20대	74	24.7
	여성	183	61.0		30대	71	23.7
학력	고졸	57	19.0		40대	82	27.3
	대졸	204	68.0		50대	73	24.3
	대학원졸	39	13.0	가계 소득	100만원 미만	17	5.7
직업	전문직	63	21.0		100~200만원 미만	45	15.0
	사무직	56	18.7		200~300만원 미만	70	23.3
	생산·기술직	22	7.3		300~400만원 미만	62	20.7
	서비스직	41	13.7		400~500만원 미만	51	17.0
	공무원·교직원	23	7.7		500~600만원 미만	21	7.0
	자영업	18	6.0		600~700만원 미만	12	4.0
	학생	34	11.3		700~800만원 미만	8	2.7
	퇴직무직	14	4.7		800만원 이상	14	4.7
	주부	29	9.7				

2. 사회적 자본의 신뢰도 및 타당성 분석

좋은 마을 만들기 사업에 대한 주민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자본의 요인별 영향관계 분석을 위해 기존 선행연구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25개의 사회적 자본 측정 문항에 대해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주성분 분석과 요인 적재량의 단순화를 위해 베리맥스 회전(Varimax Rotation)을 통해 요인의 신뢰성 검증을 위한 Cronbach α값을 확인하였다. 분석결과, 낮은 요인적재량을 나타낸 문항 3개를 제외한 22개의 항목이 '규범', '네트워크', '참여', '신뢰', '호혜성' 등 4개의 요인으로 도출되었다. 분석 결과, 모든 요인에서 Cronbach α값이 0.6 이상으로 나타남에 따라 높은 내적 일관성을 보였으며, 분산설명력은 60.77%로 적합한 공통요인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규범 요인 6개 문항, 네트워크 요인 5개 문항, 참여와 호혜성 요인은 각각 4개 문항, 신뢰 요인은 3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표 4〉 사회적 자본의 탐색적 요인분석 분석결과

요인명	요인문항	요인 적재량	신뢰도
규범 (6.07, 27.60%)	범과 질서 준수	.779	.840
	가정 및 사회적 규범 준수	.770	
	가족 및 이웃에 대한 도덕 준수	.742	
	범법 행위에 대한 신고 의식	.713	
	지방자치 조례 준수 의식	.710	
	각종 국가 선거에 대한 투표 참여	.642	
네트워크 (2.86, 12.98%)	외부 지역 사람들과의 상호협력 및 교류	.769	.821
	우리 지역 이웃과의 상호협력 및 교류	.748	
	지역 연고 모임이나 행사 참석	.743	
	도움을 청할 이웃의 넓은 범위	.725	
	외부 지역에 거주 중인 가족 및 친척과의 교류	.590	
참여 (1.73, 7.84%)	우리지역 시민단체나 공익단체 등에서의 활동	.821	.778
	주민자치단체 활동	803	
	우리지역 공공시설(도서관, 시청 등) 이용	.667	
	우리지역의 사회적 갈등 해결을 위한 활동	.538	
호혜성 (1.50, 6.81%)	소외계층이나 외국인노동자 정책에 대한 찬성	.825	.715
	다문화가정 정책에 대한 찬성	.779	
	우리지역에 기피시설 설치 찬성	.666	
	사후 재산환원 및 장기기증 의사	.510	
신뢰 (1.22, 5.54%)	중앙정부의 정책 결정 과정에 대한 신뢰	.820	.682
	우리지역 정부의 정책 결정 과정에 대한 신뢰	.813	
	우리지역의 범죄 안전도에 대한 신뢰	.541	

추출방법:Principal Component Analysis, 회전방법:Varimax
KMO(Kaiser-Meyer-Olkin)=0.848, 총분산: 60.77%, a: eigen-value, b: 분산
Barlett's Test of Sphericity=2570.414(p<0.000).

3. 모형추정과 가치평가

지불의사 추정을 위한 이중양분선택형 문항의 지불의사금액과 영향변수 추정을 위해서는 로짓모형을 적용하였다. 로짓모형의 종속변수는 지불의사(WTP)이며 설명변수로는 제시가격(BID)과 사회적 자본 변수 5개 요인(규범, 네트워크, 참여, 호혜성, 신뢰), 인구통계학 특성인 성별, 결혼여부, 연령, 직업, 교육 수준, 가계소득, 거주기간 등을 포함하였다.

제시가격은 3개 가격대인 1,000원, 3,000원, 5.000원으로 설정하여 만원 단위로 절단하여 사용하였으며, 사회적 자본 하위 요인들은 5점 리커트 척도를 통해 측정하여 요인의 평균값을 사용하였다. 인구통계학 변수 중 연령별로 2-30대와 4-50대 군으로 나누었으며, 직업은 전문가, 사무직, 공무원을 화이트 칼라군으로 리코딩하였다. 교육수준은 대졸을 기준으로, 거주기간은 10년 이하와 이상 2개의 군으로 나누어 모형에 적용하였다.

〈표 5〉 모형의 분석 변수 설명

변수 내용	변수명	변수 정의	Logit	
			평균	표준편차
종속 변수	WTP	지불의사 (1=있다, 0=없다)	0.690	0.463
제시 가격	BID	제시 가격 (만원)	0.300	0.164
사회적자본 변수	규범	5점 리커트 척도	4.033	0.599
	네트워크		3.083	0.693
	참여		2.791	0.792
	호혜성		3.294	0.680
	신뢰		2.961	0.623
인구통계학 변수	성별	성별(남성=1, 여성=0)	1.610	0.488
	결혼유무	결혼여부(미혼=1, 기혼=0)	1.600	0.491
	연령	연령 (20,30대=1, 40,50대=0)	2.513	1.110
	직업	직업(1=WHITE, 0=그 외)	4.130	2.686
	교육수준	교육수준(1=고졸이하 0=대졸이상)	3.940	0.581
	가계소득	가구당 소득(만원)	3.580	1.916
	거주기간	거주기간(10년 이하=1, 10년 이상=0)	3.770	1.795

기본적으로 이중양분선택형(DBDC)은 단일양분선택형(SBDC)의 로짓모형으로부터 도출된 모수값에 대해 최대우도추정법을 재적용하여 모수를 추정하는 방법이다. 따라서 DBDC를 수행하게 되면 SBDC의 계수는 자동적으로 도출되나 본 연구에서는 결과의 신뢰성을 고려하여 DBDC의 결과값을 제시하였다. 지불의사 모형에 포함된 설명변수는 제시가격, 사회적 자본의 5개 구성요인, 인구통계학적 특성 7개 변수 등으로 이루어졌다. Chi-Square 값으로 판단한 모형적합도는 양호한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지불의사에 미치는 제시가격(BID)의 영향력이 1% 수준에서 마이너스로 유의하게 나타나고 있어 수요의 법칙을 충족시키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분석 결과, DBDC모형의 지불의사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보이는 변수는 사회적 자본 요인은 참여(1% 수준)와 호혜성(1% 수준)이었으며, 인구 통계적 변수 중에는 연령, 교육수준, 거주기간(10%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즉 사회적 참여 수준이 높고, 호혜적 성격이 강할수록 마을 만들기 사업에 대한 호의적 태도 형성으로 인해 마을 만들기 기금의 지불의사를 가지는 것을 확인하였다.

〈표 6〉 모형 추정 결과

변수명		DBDC Model	
		coeff.	t-value
제시가격		-1.927	-9.452***
사회적 자본 변수	규범	.229	1.010
	네트워크	-.028	-.123
	참여	.608	3.175***
	호혜성	.719	3.498***
	신뢰	.341	1.545
인구통계학 변수	성별	-.018	-.066
	결혼유무	-.212	-.532
	연령	.291	1.649*
	직업	.041	.869
	교육수준	.418	1.874*
	가계수입	-.003	-.052
	주거기간	-.117	-1.666*
상수		-5.88480581	-3.814***
x^2		646.0633(p<0.000)	
LLF		323.0317	
# of Obs.		300	

*, **, ***는 각각 10%, 5%, 1% 수준에서의 유의도를 의미함.

재화의 편익은 모형추정에 의해 도출된 계수를 이용하여 계산된다. 편익추정을 위해 이용되는 파라미터 추정치들은 그 자체가 확률변수이므로, 편익추정치 역시 미지의 확률분포를 갖는 변수이다. 각 함수형태는 편익추정을 위한 파라미터들의 다른 변형을 의미할 것이고, 따라서 파라미터 추정치의 불안정성은 편익추정치에 있어서의 불안정성과 연결된다(Adamowicz, W., Boxall, P., Williams, M., & Louviere, J., 1998). 문제는 함수 파라미터와 그로부터 추정되는 편익추정치의 임의성으로 인해 선택된 모형의 적합도(goodness-of-fit)가 편익추정치의 신뢰성을 보장해 주지 않는다는 점에 있다. 그러나 다수의 연구들은 지불의사 추정을 위해 적용되는 다른 모형들에 비해 이중양분선택 모형 추정치의 신뢰성에 대해 언급하였으며, 대다수의 비시장재화와 공익자원에 대한 편익추정에는 이중양분선택모형의 결과치가 사용되어 왔다(주덕, 2015).

따라서 본 연구는 좋은 마을 만들기 사업에 대한 주민의 지불의사 추정에 있어 이중양분선택모형의 추정치를 적용하여 6,085원의 연간 가구당 지불의사액을 추정하였다. 이는 대전시민이 좋은

마을 만들기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해 연간 지불할 수 있는 가구당 금액을 뜻하며, 이를 해당 가구가 속한 범위 내의 모집단으로 확장한 것을 해당 재화의 총가치로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좋은 마을 만들기 사업에 대한 대전광역시 시민의 총편익은 추정된 연간 가구당 지불의사액에 대전시 총 가구수를 곱하여 나온 결과값으로 제시된다. 2016년 2월 기준 대전시의 총 가구수는 599,010가구로, 전술한 공식에 따라 좋은 마을 만들기 사업의 연간 총가치는 약 36억 4천 4백만 원(3,644,975,850원)으로 추정된다. 이는 2015년까지 좋은 마을 만들기 사업에 투입된 총 예산인 13억 4천 5백만 원을 훨씬 웃도는 결과로, 연간 투입 예산(2013년 6억 4천만 원, 2014년에 4억3천만 원, 2015년 2억 7천만 원)과 비교하면 더 큰 격차로 좋은 마을 만들기 사업에 대한 주민 평가가 높게 나타나는 것을 의미한다.

V. 결론

본 연구는 최근 국내에서 로컬거버넌스의 일환으로 각 지자체에서 경쟁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마을 만들기 사업에 대해 해당 지역의 주민들이 주관적으로 인식하고 평가하는 수준은 어떠한지에 대한 의문에서 출발하였다. 각 지자체는 매년 마을 만들기 관련 사업에 일정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 바, 이러한 정책 사업에 대해 주민들이 어떻게 인지하고, 평가하는지는 예산 배정과 집행에 있어 중요한 의미를 갖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마을 만들기 사업에 대한 주민들의 평가를 경제적 가치로 측정하여 그 결과를 현재 투입되고 있는 마을 만들기 관련 예산과의 비교를 통해 해당 사업의 추진타당성과 지속가능성을 타진해 보고자 하였다. 또한 공공사업인 마을 만들기 사업이 편익의 공공성을 가지며, 주민의 자발적이고 주도적인 활동이 사업 추진의 핵심이 된다는 관점에서 마을 만들기 사업의 평가에 있어서 공공의 문제에 대해 구성원들의 합의된 문제의식과 이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을 가능케 하는 무형의 자원인 사회적 자본의 영향력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이 같은 맥락에서 본 연구는 신뢰와 배려의 공동체 조성과 주민자치의식 함양 및 역량강화를 정책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대전형 좋은 마을 만들기 사업'을 대상으로 대전시민이 평가하는 가치를 측정하여 마을 만들기 사업의 추진 타당성을 확인하고, 그러한 주민 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자본의 구성요인을 파악하여 향후 마을 만들기 사업의 주민 참여를 독려할 수 있는 사회적 자본의 증진방안을 논의하고자 하였다. 마을 만들기 사업의 가치평가와 사회적 자본 간의 인과관계 파악을 위한 수요모형은 조건부가치평가법(contingent valuation method)의 이중양분선택모형을 적용하여 지불의사(willingness to pay)를 파악하고, 마을 만들기 사업의 총가치를 추정하였다. 실증분석을 위한 데이터는 총300개 표본을 사용하였으며 수집된 자료의 기초분석에는 SPSS 18.0 프로그램을, 지불의사 추정을 위한 로짓모형(Logit Model)분석에는 계량경제학 프로그램인 LimDep 8.0을 사용하였다.

지불의사 추정을 위한 로짓모형에는 종속변수를 지불의사(WTP)로 하여 제시가격(BID)과 사회

적 자본 변수 5개 요인(규범, 네트워크, 참여, 호혜성, 신뢰), 인구통계학 특성인 성별, 결혼여부, 연령, 직업, 교육 수준, 가계소득, 거주기간 등이 설명변수로 투입되었다. 분석 결과, 지불의사에 사회적 자본 요인은 참여(1% 수준)와 호혜성(1% 수준) 요인이, 인구통계적 변수는 연령, 교육수준, 거주기간(10% 수준)이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추정된 연간 가구당 지불의사 금액은 6,085원이었으며, 모집단 확장을 통해 도출한 좋은 마을 만들기 사업의 총 가치는 약 36억 4천만 원(3,644,975,850원)이었다. 이는 사업의 연간 예산액뿐만 아니라 2015년까지 3년간 투입된 총예산과 비교했을 때에도 크게 상회하는 금액으로 해당 사업의 편익에 대한 주민의 인식과 평가가 매우 긍정적임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지방정부는 향후 마을 만들기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과 확장을 위한 예산 증액이 요구되며, 장기적으로는 본 사업을 국가보조금에만 의존한 사업이 아닌 참여 주민의 자부담 비율을 늘려 해당 사업에 대한 주인의식을 키우려는 시도도 요구된다. 이밖에도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제도와 환경조성을 위해 각 지방공무원의 역량을 강화해야 하며, 주민자치센터의 권한 강화, 마을 만들기 관련 전문 인력의 확충, 마을지원센터 등과 같은 전담행정지원체계 구축, 관련 조례 및 법령 정비 등의 행정적 시스템의 변화도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본 연구의 분석결과에 따라 실질적인 주민 참여 독려를 위한 지역의 사회적 자본 활용전략이 요구된다. 특히, 사회적 자본 구성요인 중 지역의 참여와 호혜성 강화를 위해 지방정부는 다양한 지역 공동체 조직 기반을 제공하고 관련 제도와 정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또한 지방정부는 해당 지역에 자원봉사 활동 센터와 같은 호혜성을 기반으로 운영되는 공동체 활동을 위한 물리적 시설을 마련하여 이에 대한 체계적인 운영과 접근의 용이성을 제공해야 할 것이다. 일반적으로 공익을 우선시 하는 호혜적 성격의 활동들은 반복학습을 통해 체화되는 특성을 갖기 때문에 지방 정부는 관련 활동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센터의 상시 운영을 제도화하고 지속적인 교육과 인력 지원이 요구된다(노병찬 외, 2016).

일부에서는 사회적 자본 형성에 관한 지방정부의 역할이 커지는 것을 부정적으로 해석하고 있으나(Putnam,1993) 국내의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한 조사는 사회적 자본 증진을 위한 정책 추진에 있어 지방정부의 역할(1위(43.3%))이 가장 커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황영호 외, 2003). 따라서 지방정부는 앞서 전술한 활동 이외에 지역민의 재산권 보호, 치안유지 등 각종 공공재의 효과적 공급, 시민교육의 활성화, 정보공개 등과 특히 공동체 의식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시민교육 등의 역할을 담당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마을 만들기 사업을 비시장재화로 정의하여 이에 대한 주민의 가치평가를 통해 본 사업의 현재 가치를 평가하고 향후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 방안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마을 만들기 사업이 전국적으로 추진되는 정책 사업이라는 점에서 향후 연구에서는 다양한 조사 대상지와 표본을 선정하여 분석 결과의 일반화를 확보해야 할 것이다. 또한 분석 측면에서 점추정 방식으로 도출된 본 연구의 추정값 보완을 위해 향후 연구에서는 모집단의 평균값이 있을 만한 구간을 추정하는 구간추정 방식을 사용하여, 추정된 모집단 평균값의 신뢰성 확보가 요구된다.

참고문헌

곽현근. (2007). 지역사회 사회자본의 실태 및 영향요인; 대전광역시를 중심으로. 「서울행정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서울행정학회: 357-385.

김명숙. (2004). 지역 사회자본의 지방정치에 대한 효과. 『한국지방자치학회보』, 제16권 3호.

노병찬·주덕. (2016). 주민주도형 마을 만들기 참여 만족도에 따른 사회적 자본 차이 분석. 「지방정부연구」, 제20권 1호: 357-385.

대전광역시 사회적 자본 지원센터. (2014). 「좋은 마을 만들기 사업 백서」.

소진광 외. (2006). 「지역특성에 따른 사회적 자본 측정지표 개발」, 푸른솔

안현찬·박소현. (2012). 마을 만들기 관점에서 본 주민자치위원회의 특성 분석. 「대한건축학회지」, 28(2): 149.

이왕기·정승현. (2014). 고령사회에 대응한 마을 만들기 전략. 「도시설계」, 15(1): 137.

이희찬. (2007). 농촌관광경험이 농촌공익기능자원의 비이용 가치에 미치는 영향. 『농업경영 정책연구』, 34(1): 62-85.

윤혜영. (2013). 마을 만들기 조례에 근거한 마을 만들기 사업의 운용 실태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지」, 29(8): 113.

와타나베순이치. (2004). 「시민들이 참여하는 마을 만들기」, 목원대학교출판부.

전경호. (2013). 귀농인들에 의한 농촌의 마을만들기 사례 연구. 「농촌사회학회지」, 23(1): 241.

전영평·최준호. (2002). 지방자치 활성화를 위한 주민참여에 대한 연구. 한국지방자치학회 세미나, 85-111.

정규호. (2007). 「거버넌스의 의미와 현황. 시민환경운동진영의 과제」. 제12회 녹색사회포럼 자료집.

정석·김택규. (2015). 국내 마을 만들기 연구동향과 사람에 중점을 둔 연구의 특성 분석. 「한국도시설계학회지」, 16(5): 123-138.

정지웅·임상봉. (1999). 「지역사회개발학」. 서울대학교출판부

주덕·이희찬. (2015). 사회적 자본이 공익적 관광개발사업 가치평가에 미치는 영향. 「관광학연구」, 38권7호: 261-278.

최길수. (2013). 「대전의 사회적 자본의 수준 진단 및 시사점」, 대전발전연구원.

최영출. (2004). 지역의 사회자본 측정지표 설정. 「지방정부연구」, 8(3); 119-144.

최희영·이희정. (2014). 주민참여 마을만들기에서 여성의 참여와 역할에 관한 연구. 「국토계획」. 46(6): 159.

하워드 가드너. (2006). 「통찰과 포용」. 서울: 북스넛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12). 「지방자치단체의 사회적 자본 측정 및 증진방안」.

황영호·박종관. (2003). 지역사회자본의 실태와 형성전략. 서울행정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34-55.

홍진이. (2013). 마을만들기 사업과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공공사회연구」, 제3권 2호: 151-169.

Adamowicz, W., Boxall, P., Williams, M., & Louviere, J.(1998). Stated preference approaches for

measuring passive use values: choice experiment and contingent valuation. American Journal of Agricultural Economics, 80(1): 64-75.

Bourdieu, Pierre.(1986). The Forms of Capital. In J. G. Richardson(ed), Handbook of Theory and Research for the Sociology of Education. Westport: Greenwood Press, 241-258.

Hillery, G. A. (1995). Definitions Of Community: Areas Of Agreement. Rural Sociology. 20(2): 111-123.

Coleman, J. S. (1988). Social capital in the creation of human capital.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S95-S120.

Stone, W.(2001). Measuring Social Capital: Towards a Theoretically Informed Measurement Framework for Researching Social Capital in Family and Community Life. Family Matters Autumn, 38.

Fukuyama, F. (1995). Trust; The Social Virtues and the Creation of Prosperity, New York; Free Press.

Krishna, A.(2001). Enhancing Political Participation in Democracies: What is the Role of Social Capital? Working Papers Series San 01-03. Terry Sanford Institute, Duke University.

Onyx, J., & Bullen, P. (2001). Measuring social capital in five communities. Journal of Applied Behavioral Science. 36(1): 23-42,

Hanemann, W. M., & Kanninen, B.(1998). The Statistical Analysis of Discrete-Response CV Data. Working Paper No. 798. Department of Agricultural and Resource Economics, University of California, San Diego.

Mitchell, R. C., & Carson, R. T.(1989). Using Surveysto Valuepublicgoods: The Contingent Valuation Method. Washington, DC: Resources for the Future.

Weisbrod, B. A.(1964). Collective consumption services of individual consumption goods.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78, 471-477.

Willis, K., Garrod. G., & Saunders, C.(1995). Benefits of environmentally sensitive area policy in England: A contingent valuation assessment. Journal of Environmental Management, 44(2), 105-125.

주덕: 예원예술대학교 관광경영학과 연구교수(djoo79@naver.com)

〈논문접수일: 2016. 10. 17 / 심사개시일: 2016. 10. 20 / 심사완료일: 2016. 10. 27〉

Abstract

The Determinants of Value Estimation on Community Building Business: Focusing on the Local Social Capital

Ju, Deok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whether the local residents evaluate positively about the social benefits including an environment improvement, the local administrative capacity. the sense of community building of the community building business recently being promoted across the country. For this purpose, this study estimates the total value of the good community building business in Daejeon using contingent valuation method, and the social capital factors which influence on such an assessment.

To achieve purpose of this study, a dichotomous choice form of contingent valuation was developed to explain the role of social capital on good community building business. The results of this study showed that the willingness to pay for the project was significantly affected by 'participation', 'reciprocity' as the social capital factors. And total economic value of good community building business was an estimated about 3.6 billion 4 thousand won, averaging about 6,085 Won per household. The estimated total value of good community building business significantly exceed the amounts of annual as well as total budget for three years. this means that citizens in Daejeon have a very positive awareness and assessment for the benefit of good community building business.

Key Words: Community Building Business, Value Estimation, Contingent Valuation Method, Double Bounded Dichotomous Choice, Local Social Capital